

# 장성 '황금사과' 맛의 비밀 밝혀졌다

### 장성군,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물리·화학적 분석 결과 발표

### 비타민C·사과산 풍부...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걱정도 '無'



엘로우시티 장성의 특산물인 '황금사과'의 우수한 품질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최근, 장성군은 황금사과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는 해당 분야 전문 기관인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장성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장성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황금사과는 일반사과에 비해 칼슘이 적고,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워 상큼한 식감을 선사한다. 장성군과 연구센터에 따르면 황금사과는 일반적인 사과 품종보다 칼슘 함량(폴리페놀 분해 효소)의 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군은 황금사과 브랜드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작년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착안한 포잠재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엘로우황금사과' 브랜드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맛의 비밀도 밝혀졌다. 장성 황금사과는 비타민C, 사과산(말릭산)의 함유량이 일반사과보다 2배 이상 높아 새콤달콤한 맛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당도 역시 15브릭스(brix)로 일반적인 사과 품종보다 1.4브릭스 가량 높다.

식품 안전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축적, 잔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중금속과 잔류농약 성분이 '식약처 허용 기준 미만' 또는 '불검출'된 것으로 조사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과학적 연구를 거쳐 황금사과의 우수한 품질 특성이 규명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맛있고 건강에도 유익한 장성 황금사과를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장성 황금사과' 육성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 장성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출하를 시작했다. 현재 30여 농가 12헥타르(ha) 규모로 황금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황금사과 브랜드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작년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착안한 포잠재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엘로우황금사과' 브랜드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 화순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오늘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매출 감소 업종 대상

화순군은 중소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1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 39개 사업 74개소 대상 2월 15일까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담양군이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농촌진흥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39개 사업 74개소를 대상으로 신기술 보급사업에 총 30억 1천2백7십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식량작물 분야에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등 2개 사업 2개소, 원예 분야는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및 보급시범 등 6개 사업 10개소, 신소득·과수작물 분야는 아열대작목 만감류 재배단지조성 등 6개 사업 19개소를 지원한다.

또한 축산 분야는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축산 신기술 활용 시범 등 15개 사업 17개소, 농촌자원 분야는 치유농업육성 시범 등 4개 사업 5개소, 교육경영분야는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 21개소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정보화교육 및 도시민유치사업도 함께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희망농가는 해당 읍면의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상담한 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자금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곡성군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금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설 증개축, 수선, 리모델링 사업과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물품 구입비이며, 사업비의 70%범위에서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합쳐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계·장비, 물품구입비는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곡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신청대상이며, 신청기간은 1월 29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기존 보증금 수해 및 판의 주 소자에게는 감점이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곡성=양혜영기자

##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SRF 열병합발전소 '소통실무협의단' 운영

### 소모적 논쟁·법률적 다툼 지양한 소통 창구 복원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종료됨에 따라 단절된 소통 창구를 복원하고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선다.

나주시는 한난과 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대립과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현안 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소통실무협의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소통실무협의단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도입 등 미래 비전 마련에 중점을 둔다.

우선 시와 한난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발전소 갈등 현안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의 참여 주체를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친환경에너지 공급시설

대체 방안' 등을 공동 의제로 설정해 실무 단계부터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모적 논쟁과 법률적 다툼을 떠나 시민의 뜻과 이해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나주시와 한난의 소통협의단 구성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난 관계자 또한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의 미래 지향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단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나주시와 한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주민 설명회 추진

### 2023년까지 4년간 70억 투입

구례군은 6일부터 21일까지 '구례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이다.

구례군은 이 사업에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9억, 지방비 21억)을 투입하여 기 조성된 H/W 활용과 고도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액션그림 발굴 및 사람·산업·마을 간 연계 활성화 등 구례군의 새로

운 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례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구례군 홈페이지 및 구례소통마루 플랫폼(<http://policy.gurye.go.kr/>) 등을 통해 6일부터 시행 가능하다.

구례=박진호기자

#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